



ISSUE PAPER

미국 3D 시장 현황

□ 들어가기

- 3D TV 개발을 시작으로 3D 콘텐츠는 극장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가정용으로 제작
- 2010년, 극장에서 붐을 일으켰던 3D는 이제 손쉽게 개인이 집에서 즐길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2011년 CES에서 삼성, LG, 소니를 비롯한 많은 전자제품 기업들이 3D TV나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들을 대거 선보임
- 이러한 기기들이 소개되면서 앞으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3D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함

□ 3D 전문 TV 채널

☞ ESPN 3D

- 2010년 디즈니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은 3D 채널 ESPN 3D를 출시
- 이후, 특정 라이브 스포츠 게임만을 3D로 방영, 2010년 한해 ESPN 3D는 60개 정도의 스포츠 게임을 3D로 방영하였음
- 2011년, ESPN 3D는 앞으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3D로 방영하겠다고 발표, 라이브 게임은 물론이고 재방송 프로그램 역시 3D로 방영될 것임

- 또한, 3D 전문 채널인 만큼 앞으로 ESPN 3D 채널의 모든 광고 역시 3D로 방영될 것이라고 발표

☞ 3net

- 2011년 CES에서 소니는 컨퍼런스를 통해 아이맥스,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설립한 네트워크 3net을 공식적으로 발표
- 올해 초에 론칭될 예정인 3net은 미국 최초의 3D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로 세계최대 규모의 3D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
- 3net은 아이맥스와 디스커버리 채널이 공동으로 설립한 네트워크에 걸맞게 자연 다큐멘터리, 어드벤처, 여행, 역사, 요리, 콘서트와 같은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 이번 CES를 통해 소니는 3net에 방영될 프로그램 일부를 공개
 - Experience 3D : 어드벤처 시리즈로 관객들에게 여행을 통한 경험을 공개
 - Hubble 3D : NASA의 역사 및 Hubble 우주 망원경의 모습을 공개, 우주비행사의 일상을 동행
 - Qube 3D : 3D 관련 뉴스정보 제공 프로그램
 - Wildebeest Migration :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이외에도 이미 16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채널 론칭 함께 다양한 3D 프로그램이 3net을 통해 제공될 것임

☞ n3D

- 미국의 위성케이블 기업인 Direct TV는 Panasonic과 함께 2010년 3D 채널인 n3D를 론칭
- 이 채널은 미국 최초의 24시간 3D 채널로 히스토리 채널이나 ESPN 3D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이미 방영된 3D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방영
- 주로 자연 다큐멘터리나 야구, 테니스 게임, 자동차 경주와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음



- 현재로써는 3D 영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스포츠나 자연 다큐멘터리가 주로 제작되며 인기를 끌고 있음
- 아직까지는 드라마나 리얼리티 쇼와 같은 분야에서는 다양한 3D 콘텐츠가 제작되지 않고 있음
 - 2009년 2월, NBC의 액션코미디 시리즈 ‘Chuck’이 미국 최초로 3D로 제작되어 방영되었음
- 3D 방송이 기존 HD 방송처럼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으로 앞으로 다양한 3D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3D 채널이 스포츠나 다큐멘터리 이외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 ※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3DTV를 통해 시청 가능한 드라마가 제작
 - · 후지TV네트워크에서 론칭한 SkyPerfeTV라는 3D채널의 개국기념으로 특별 제작되는 이 드라마는 2주 간격으로 10편의 에피소드가 방영되며 3D채널 론칭과 함께 일요일 저녁 3D스포츠, 음악, 다큐멘터리 등 방송 콘텐츠를 정규 편성할 예정임

□ 콘솔 게임 (Nintendo 3DS)

- 닌텐도는 1월 19일 뉴욕에서 선보인 쇼케이스를 통해 휴대용 3D 게임기기인 닌텐도 3DS를 발표
- 2011년 3월 27일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이 기기는 249.99달러에 판매될 예정임

- 닌텐도 3DS는 내부 카메라 1개와 외부 카메라 2개를 이용하여 3D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며 3D 특수 안경 없이도 3D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DS와 달리 모션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추가되어 더욱 실감적인 게임을 즐길수 있음
- 닌텐도 3DS 출시와 같은 날 8개의 3D 게임을 동시 출시
-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는 20여개의 3D 게임과 출시일이 이미 공개되어있음
- 공개된 게임의 장르를 살펴보면, 게임 역시 TV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3D 영상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레이싱이나 액션/어드벤처 장르가 주를 이루고 있음

타이틀	장르	개발회사	출시일
Pilotwings Resort	스포츠	Nintendo	2011년 2분기
Super Street Fighter IV	파이팅	Capcom	2011년 3월
Nintendogs +cats	소셜 커뮤니케이션	Nintendo	2011년 2분기
Steel Diver	전투	Nintendo	2011년 2분기
Asphalt	레이싱	Ubisoft	2011년 6월
LEGO Star Wars III	액션/어드벤처	LucasArts	2011년
Kid Icarus	슈팅	Nintendo	2011년 6월
The Legend of ZeldaT	액션/어드벤처	Nintendo	2011년 6월
Madden NFL Football	스포츠	Electronic Arts Inc.	2011년
Dead of Alive Dimensions	파이팅	Tecmo Koei America Corp.	TBA
Pro Evolution Soccer 2011	스포츠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Inc.	2011년 3월
Star Fox 64	액션/어드벤처	Nintendo	2011년
Ridge Racer	레이싱	Namco Bandai Games Inc.	2011년
Combat of Giants	파이팅	Ubisoft	2011년 3월
Resident Evil: The Mercenaries	액션	Capcom	TBD
Bust-A-Move Universe	퍼즐	Square Anix	2011년 3월
Super Monkey Ball	퍼즐	SEGA	2011년 3월
Samurai Warriors Chronicles	액션	Tecmo Koei America Corp.	TBA
Tom Clancy's Ghost Recon Shadow Wars	슈팅	Ubisoft	TBA
The Sims 3	시뮬레이션	Electronic Arts Inc.	2011년 3월

- 하지만 3D 비디오 게임은 소비자들에게 TV보다 높은 완성도와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TV 콘텐츠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함
- 닌텐도측은 출시일부터 E3(6월에 개최되는 게임 엑스포)까지 총 30개 이상의 3D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
-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The Legend of Zelda와 Kid Icarus는 E3를 통해서 공개 될 것임
- 특정 매체들은 현재의 닌텐도 3DS보다 다음세대(2세대)를 기대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아직까지 휴대용 3D 비디오 콘솔이 얼마만큼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 어플리케이션

- GRilli3D라고 불리는 3D디스플레이용 화면은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iPad/iPhone 등에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는 3D 디스플레이에 이용할 3D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 현재 아이튠즈는 3D 게임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이미지관련 (포토샵 및 디지털 북) 3D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 라퐁젤, 돼지 삼형제와 같은 어린이 동화 디지털북이 3D로 제작되어 인기를 얻고 있음
 - 최근 스포츠 전문 잡지 Sports Illustrated 또한 어린이 팬들을 위해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3D 디지털 이미지 북을 개발
- 아직은 예측에 불과하지만, iPad, iPod, iPhone에 탑재될 다음 단계로 3D를 보는 시선이 많음
- 콘솔게임과 달리 단순한 구성의 게임이 스마트폰/태블릿 PC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3D 게임보다는 디지털북이나 이미지 뷰잉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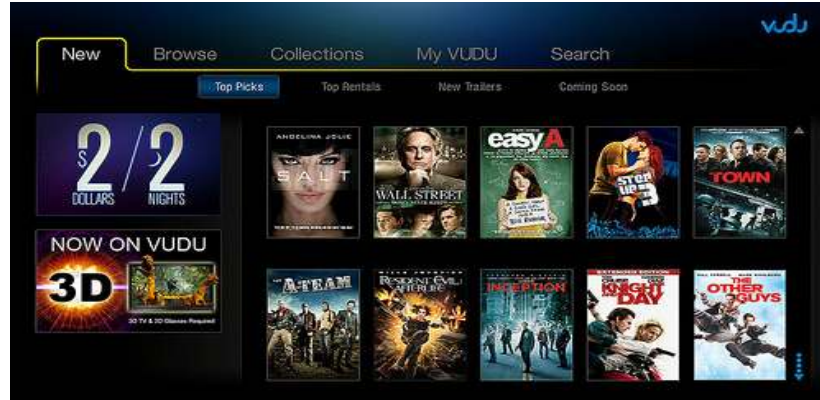
3D 콘텐츠를 개발할 것으로 보임

☞ 디즈니 전용 3D 휴대폰

- Disney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와 합작으로 디즈니 전용 3D 휴대폰을 출시 예정
- 안드로이드 OS와 3D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휴대폰 기기를 사는 이용자들은 3D 특수 안경이 없이도 3D 콘텐츠를 즐길수 있음
- 디즈니 폰의 사용자들은 디즈니 이메일 계정을 갖게 될 것이며 독점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온디맨드 영화 스트리밍

- Wal-Mart가 소유하고 있는 온디맨드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인 VUDU는 지난 1월 17일 본격적으로 3D 영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VUDU는 3D TV, PS3,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를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3D 콘텐츠 스트리밍을 제공
- 3D 영화의 스트리밍 가격은 2D 보다 1달러 높은 5.99달러이며 구매가격은 29.99 달러임
- 현재 많은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2011년에 개봉을 앞둔 3D 영화는 모두 VUDU를 통해 3D 서비스가 가능해 질것임
 - 3D 서비스 발표와 함께 공개된 3D 콘텐츠로는 디즈니의 'Bolt', 'Meet the Robinson's' 그리고 'Chicken Little'이 있음
- 또한 DVD 출시 15일 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Netflix와 달리 VUDU는 DVD 출시일과 같은 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 그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3D 영상은 이미 극장을 넘어서 개인이 즐길수 있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포맷으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Sony와 Panasonic과 같은 3D TV 제조업체들은 3D 콘텐츠 활성화를 통하여 TV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3D 전문 채널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기존의 스포츠나 다큐멘터리 영상보다는 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이 3D TV 확대를 더욱 촉진시켜 기존의 HD TV를 대신해 3D TV가 현지에서 시장주류로 등장할 것임
- HD 시장처럼 3D 시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폭넓은 콘텐츠가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함
- 또한 관련기기는 물론, 채널 및 콘텐츠 등의 3D 시장을 활성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